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소제목: 여행에서 만난 강릉을 다시 살펴보다]

- 여름 휴가지를 정하면서 경북 안동과 강릉을 두고 고민했다. 창원에서 강원도까지는 이동 거리가 있어 언제 다시 가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는 강원도를 가보자는 마음으로 강릉을 선택했다. 강릉에서 1박 한 뒤 동해에서 1박 하는 일정으로 여행을 계획했다.

-자동차를 타고 강릉에 도착해 경포대를 찾았다. 바다 주변을 둘러보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다. 저녁에는 강릉중앙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둘러보고 웡심이를 먹었다. 다음 날에는 동해로 이동했다. 강릉에 온 김에 동해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동했고 바다를 둘러본 뒤 회를 먹으며 여행을 이어갔다.

-여행을 마친 뒤 방문했던 장소를 다시 떠올리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다. 내가 여행지에서 본 모습과 그 주변 지역의 통계는 어떻게 다를까. 같은 지역이라도 관광지과 시장 그리고 음식점 주변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직접 방문한 장소를 SGIS로 다시 살펴보면서 여행 중에는 보이지 않았던 지역의 모습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 추진 과정

- 실제 여행에서 방문한 장소를 분석 지점으로 선정했다. 경포대와 강릉중앙시장 그리고 강릉에서 웡심이를 먹었던 홍가네 웡심이를 대상으로 정했다. 유명한 장소를 따로 찾아 선정하기보다 여행 중 직접 이동하고 이용했던 장소를 기준으로 삼았다.

- SGIS 생활권역 통계지도를 활용해 세 장소 주변의 지역 특성을 살펴봤다. 각 지점을 기준으로 생활권을 설정하고 인구와 가구 그리고 주택과 사업체 등의 통계를 확인했다. 주요 생활업종도 함께 살펴보면서 관광지와 시장 그리고 음식점 주변의 차이를 비교했다.
- 현장에서 느낀 모습과 통계가 보여주는 정보를 구분했다. 경포대에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여행 중 직접 경험한 사실이다. 이를 SGIS의 인구통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현장에서 느낀 모습과 지역의 통계를 각각 살펴봤다. 여행자의 경험에 공간통계를 더하면서 익숙했던 여행지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다.

■ 활용 분야 및 주요 내용

-활용 분야: 일상생활

-주요 내용: 실제 여름휴가에서 방문한 경포대와 강릉중앙시장 그리고 홍가네 웅심이를 분석 지점으로 선정했다. SGIS 생활권역 통계지도를 활용해 세 장소 주변의 인구와 가구 그리고 주택과 사업체 및 생활업종을 비교하고 실제 여행에서 경험한 모습과 함께 살펴봤다.

□ 추진내용

- **경포대에서 여행자의 체감과 지역 통계를 비교했다.** 경포대는 이번 여행에서 방문한 주요 관광지였다. 바다를 둘러보는 동안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이 경험을 계기로 경포대 주변 지역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봤다. SGIS에서 경포대를 중심으로 생활권을 설정하고 인구와 가구 그리고 주택과 사업체 등의 통계를 확인했다. 현장에서 본 많은 사람을 지역 인구와 연결하지 않고 관광지에서의 체감과 지역통계가 서로 다른 정보를 보여준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 **강릉중앙시장에서는 다른 공간의 모습을 살펴봤다.** 저녁에 방문한 강릉중앙시장은 경포대와 방문 목적이 달랐다. 시장을 둘러보고 음식을 먹으면서 관광과 지역 상업 공간이 함께 존재하는 장소를 경험했다. 같은 방식으로 시장 주변의 생활권을 설정한 뒤 인구와 가구 그리고 주택과 사업체를 확인했다. 음식점업과 종합소매업 등 주요 생활업종도 함께 살펴보면서 경포대 주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했다.

○ **실제로 식사한 음식점까지 분석 범위를 넓혔다.** 강릉에서 웅심이를 먹기 위해 방문한 홍가네 웅심이를 세 번째 분석 지점으로 정했다. 단순히 유명한 음식점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여행 중 실제로 이용한 장소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음식점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설정하고 주변 인구와 가구 그리고 주택과 사업체를 확인했다. 음식점업을 비롯한 생활업종도 함께 살펴보면서 관광지과 시장 그리고 음식점 주변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다.

○ **세 장소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비교했다.** 경포대는 관광지이고 강릉중앙시장은 상업 공간이며 홍가네 웅심이는 실제 식사를 위해 방문한 음식점이다. 서로 성격이 다른 세 장소를 하나의 기준으로 살펴보면서 여행 중에는 지나쳤던 공간을 지역 통계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봤다. 특정 지역의 통계를 따로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여행 동선을 따라 SGIS를 활용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 추진성과

[소제목: 내가 지나온 장소에 통계를 겹쳐보다]

- 평소 여행에서 지나치던 장소를 공간통계의 대상으로 바라봤다. 경포대와 강릉중앙시장 그리고 홍가네 웅심이를 같은 기준으로 살펴보면서 관광지과 시장 그리고 음식점 주변의 지역 특성을 비교했다. 여행 당시에는 장소의 분위기와 음식 그리고 바다 풍경에 집중했지만 SGIS를 활용한 뒤에는 같은 장소를 인구와 가구 그리고 사업체가 분포하는 공간으로 바라보게 됐다.
- 현장 경험과 통계자료를 구분해서 활용했다. 경포대에서 사람이 많았다는 경험을 관광객 수로 확대하지 않았다. SGIS에서 확인한 인구통계는 관광객 규모가 아니라 해당 생활권의 지역 특성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했다. 직접 본 모습과 통계가 보여주는 정보를 구분하면서 데이터의 성격에 맞게 활용했다.
- 일상적인 여행에 SGIS를 적용하는 방법을 직접 만들어봤다. 방문지를 정하고 생활권을 설정한 뒤 통계를 조회하고 장소별 차이를 비교하는 순서로 분석했다. 특별한 연구과제나 정책 목적이 없어도 실제 방문한 장소에서 출발해 SGIS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음 여행에서도 방문지를 정한 뒤 그 지역을 통계로 다시 살펴보는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